

# 전제와 한국어 의미론 교육

최윤지(인하대)

## 1. 서론

### -본고의 목적

본 발표는 ‘전제’(presupposition)를 대상으로 하여 한국어 의미론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대학 교육을 위한 한국어 의미론 개론서에서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담는 것이 바람직한지, 기존의 저서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전제는 언어철학과 의미론 및 화용론 등의 언어학 분야에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진 핵심적인 연구 주제이지만, 한국어학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리 활발히 논의되었다고 볼 수 없고 주로 영어를 중심으로 한 이론적 논의에서 다루어졌다. 연구 논저가 아닌 개론서를 살펴보면, 한국어 의미론이나 화용론 개론서들은 적지 않게 출간되어 있지만 전제를 다루지 않거나 다룬 경우라도 학생들의 입장에서 전제의 개념과 관련 언어 현상을 이해하기 쉽지 않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들 중 몇 가지를 중점적으로 짚어보고 한국어 의미론 교육에 적절하고 효과적인 교재 집필을 위하여 어떠한 내용이 어떠한 방식으로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한다. 특히, 전제의 개념과 전제 유발 표현으로서의 내포절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 -의미론 및 화용론의 주변적인 연구 주제였던 ‘전제’

의미론, 화용론 연구사를 정리한 논문들을 살펴보면 그간 한국어 전제 연구가 활발하지 않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남경완(2012), 조경순(2016), 전영철(2018), 박재연(2020)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한국어 의미론 및 화용론의 기존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연구 경향을 분석한 논문들에서 일관되게 전제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소개한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개별 전제 연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한국어 연구의 중심 줄기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 -검토 대상 개론서 선정

위와 같은 경향에 비추어 볼 때 한국어 의미화용론 개론서에서 전제가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으리라 추정할 수 있지만, 흥미롭게도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 한 장이나 절을 차지하고 있다.

본고는 한국어 의미론 및 화용론 개론서의 주요 목록을 선정하여, 여기에 전제가 어떻게 소개되고 설명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겠다. 대상이 되는 개론서 선정 기준은 비교적 최근(2000년대 이후) 출판되었으며 한국어로 쓰였고 한국어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하였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대학에서의 의미론 교육의 현황을 살핀 박선자·김문기(2009)의 조사에서 대학 교재로 복수의 대학에서 사용된다고 조사된 심재기 외(1984), 박종갑(1996)은 2000년대 전에 출판된 것이지만 조사 대상으로 포함하였다.<sup>1)</sup> 이에 아래와 같은 총 8종의 개론서들이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1) 임지룡(1992) ‘국어의미론’도 이 조건에 부합되지만 임지룡(2019)을 이미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기 때문에 이 책은 제외하였다.

- (1) 검토 대상 한국어 의미론 및 화용론 개론서 목록  
 심재기·이기용·이정민(1984), 의미론서설, 집문당.  
 박종갑(1996), (토론식 강의를 위한) 국어의미론, 박이정.  
 심재기·채완 공편(2002), 언어와 의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박종덕(2007), (국어교육을 위한) 국어의미론 탐구, 정인.  
 나찬연(2019), 현대 국어 의미론의 이해, 경진출판.  
 민현식 외(2019), 국어 의미 교육론, 태학사.  
 임지룡(2019), 한국어 의미론, 한국문화사.  
 윤평현(2020), 새로 펴낸 국어의미론, 역락.

이 목록에서 심재기·채완 공편(2002)을 제외한 7종에서는 책에 따라 크고 작은 양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전제를 포함하여 다루고 있다.<sup>2)</sup> 아래에서는 이 7종의 개론서에 대하여 전제가 어떠한 개념으로 제시되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전제를 표현하거나 전제와 밀접히 관련된 한국어 어휘 및 문법 요소로 어떤 것들이 어떻게 설명되었는지를 살펴보겠다.

## 2. 의미화용론 개론서에서의 전제 개념 검토

개론서들이 어떠한 개념의 전제를 다루었는지 그 입장을 분석하기에 앞서, 전제 개념과 술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술어를 쓰더라도 그 내용을 다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빈번하여 각 입장들을 예비 작업 없이 바로 비교·대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기존의 여러 주요 이론들을 참조하면서 개론서들에 소개된 전제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전체 틀을 세우고, 그 후에 각 개론서에서 소개한 전제 개념을 살펴보기로 한다.

### -전제의 유형

개론서들에 나타난 전제의 개념을 종합해 보면 크게 의미론적 전제와 화용론적 전제로 나뉘지만, 의미론과 화용론의 관계가 그러하듯이 이 두 개념은 경계가 완전히 분명하지는 않다. 또한 넓은 시각에서 보면 같은 관점에서 소속시킬 수 있는 두 이론도 보다 세부적인 측면에서 보면 작더라도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상이한 개념을 취한다고 볼 수 있는 등, 기본적으로 여러 관점들을 종합적으로 비교·대조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자의적인 기준선을 정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본고는 개론서들에 나타난 전제 개념을 전체적으로 살펴본 뒤에 입장 간에 차이를 보인 지점들에 주목하고 또한 의미·화용론 핸드북에 정리된 것을 중심으로 일반적인 전제 연구사(Atlas 2004, Huang 2007, Beaver & Geurts 2014, Sæbø 2016, Geurts 2017 등)를 참조하여 전제 개념을 나누어 보았다. 전제 개념들은 문장 S에서 전달되는 어떤 배경 명제라는 것은 공통적이지만(물론 ‘배경’의 의미는 조금씩 상이함), 아래와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2) 전제의 유형

2) 심재기·채완 공편(2002)은 개론서이기도 하지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재로 편찬되어 다른 범용 교재에 비하여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것으로, 일반적으로 다루는 의미 화용론 범위보다 좁은 범위를 다루고 추상적 이론보다는 구체적인 (특히 어휘 위주의) 현상에 집중하고 있다. 문장 의미론 자체를 다루지 않았고 따라서 전제도 다루지 않았다.

전제 1: 문장 S의 진리치와 상관없이 항상 참값을 가지는 명제. Frege(1892), Strawson(1950, 1952) 등의 논의에서 시작된 개념.

전제 2: 문장 S를 발화할 때 화자가 믿고 있는 명제. Sellars(1954) 등.

전제 3: 문장 S의 발화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명제. Keenan(1971) 등.

전제 4: 문장 S를 발화할 때 화자와 청자에게 상호 알려져 있는 명제. 화자와 청자의 공통 기반. Levinson(1983), Stalnaker(1972, 1974) 등.

전제1: ‘논리적 전제’ 혹은 ‘의미론적 전제’에 해당. 거짓말 테스트, 부정문이나 의문문에서의 살아남기 등으로 판별. 문장 P가 문장(또는 명제) Q를 전제한다는 것은 P가 참일 때 Q는 참이며 P가 거짓일 때에도 Q는 참이고, 만약 Q가 거짓이라면 P는 참도 거짓도 아닌 진리치 공백의 상태인 경우임.

전제 2~4: ‘화용론적’ 개념의 전제. 상호 완전히 구별되는 관계는 아니지만, 주된 개념 요소를 무엇으로 두느냐에 따라 위와 같이 유형을 나눔. 전제 2는 전제 1과 같은 기존의 논리적 혹은 의미론적 전제가 문장과 실제 세계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를 문장과 화자 믿음의 관계로 전환한 입장. 전제 3은 전제를 문장의 발화와 맥락 간의 관계로 보고, 문장이 그 의도된 의미로 이해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하는 특정한 문화적 물리적 조건들을 전제라고 하였다(Keenan 1971). 이는 화행의 적정조건과도 밀접히 관련됨. 전제 4는 화자의 믿음뿐만 아니라 청자의 믿음까지도 포함한 개념.

(위에 제시한 각 전제 개념들은 논의에 따라 서로 다른 개념들이 공존한다고 보기도 하고(Lambrecht 1994 등) 혹은 자신이 내세우는 개념이 다른 전제 개념보다 주어진 언어 현상을 더 적합하게 설명한다고 보기도(Stalnaker 1974 등) 함.)

-개론서들의 전제 개념

① 단일한 개념의 전제만을 다룬 개론서: 박종덕(2007), 나찬연(2019), 임지룡(2019).

의미론적 전제인 전제 1만 다루었다. 모두 제목은 의미론이지만 전제 구성에서 화용론도 포함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화용론적 전제는 다루지 않았다.<sup>3)</sup>

② 그 외의 심재기 외(1984), 박종갑(1996), 민현식 외(2019), 윤평현(2020): 의미론적 전제와 화용론적 전제를 구별하고 두 개념을 모두 다룸.

②-1. 박종갑(1996), 민현식 외(2019): 이들의 ‘의미론적 전제’는 위의 전제1의 개념인데, ‘화용론적 전제’는 전제2~4가 섞여 있음.

예) 화자가 문장 “프랑스 왕은 대머리다.”를 발화하면 그 화자는 “프랑스에는 왕이 있다”와 “청자는 프랑스에 왕이 있다고 믿는다”를 동시에 믿는다는 것으로, 화용론적 전제는 문장을 적정히 사용되게 하는 맥락의 측면에서 전제를 파악한다 (민현식 외 2019: 328)

②-2. 심재기 외(1984), 윤평현(2020): 이들의 ‘의미론적 전제’는 전제 1의 개념이고, ‘화용론적 전제’는 전제 3과 4를 포괄함. 그런데 화용론적 전제의 예로 든 것은 모두 전제 3에 해당하고 전제 4에 해당하는 것은 들지 않거나, 든 예가 부적절해 보임.

예) “\*너 진지 안 먹었구나.”에서는 “너 먹었구나”의 화계가 요구하는 화용론적 전제와 ‘진지’라는 높임말이 가지는 화용론적 전제가 모순을 일으킨다(심재기 외 1984).

예)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음으로써 한국 영화의 위상을 크게 높였지요.”는 영화 ‘기생충’이 아

3) 이 중 박종덕(2007)은 어떤 문장 속에 이미 참이라고 인정되는 성분절이 안겨 있을 때 그 성분절을 그 문장의 전제라고 하여, 의미론적 전제 중에서도 매우 좁은 의미에 국한시키고 있다.

카데미상을 받았다는 공통 지식을 화자와 청자가 공유할 때 가능한 발화이다(윤평현 2020: 331).

⇒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즉, 화자의 생각에 청자가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이 발화가 적절한가?)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문장/발화의 어떠한 요소나 특성이 그러한 화용론적 전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인지에 대한 기술도 필요함.

이와 같이 기존의 개론서에서 다룬 전제 개념들을 살펴본 결과, 의미론적 전제 개념은 동일한 반면 화용론적 전제 개념은 조금씩 상이한 여러 개념이 섞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제 개념 기술에 대한 제안

① 전제 3의 배제

화행의 적정조건과 관련된 화용론적 전제(전제 3)는 어떤 표현의 사용이 그 맥락에서 적합한지 부적합한지에 따른 것으로 너무 넓고 포괄적이며 무엇보다도 문장의 형식에 별로 직접 반영되지 않는 의미이므로 전제로 굳이 다룰 필요가 없어 보인다. 화행의 적정조건으로 설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② 전제 4-1, 4-2의 추가

지금까지 개론서에서 다루어진 화용론적 전제에 최신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아래의 개념을 더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모두 전제 4에서 파생된 것.)

전제 4-1. ‘공통 기반’이 너무 강력하다고 보고 완화한 입장. 이를테면 Dinsmore(1979)에서 화용론적 전제를 화청자의 믿음 세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에서 ‘예측할 수 있는 세계’ 안에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완화하였고<sup>4)</sup>, Atlas(2004)에서는 ‘비-논쟁가능성(non-controversiality)’ 개념을 내세웠다. 또한 전제의 ‘수용’ 개념(Lewis 1979)도 도입하는 것이 실제 전제 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수용 개념은 Stalnaker(1974)에서부터 (‘수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제시됨.

전제 4-2. 정보구조의 초점-전제. Chomsky(1969), Jackendoff(1972) 등으로부터 정보구조 논의로 이어진 전제 개념. 정보구조 논의에서도 ‘전제’를 전제 4의 개념으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또 더 좁은 의미의 초점-전제의 전제로도 사용하여 혼란이 있었음(관련해서 최윤지 2018, 2016/2019 참조). 이를 분명히 구별하여 설명해야 함.

기존의 개론서들에서는 의미론적 전제와 화용론적 전제를 나누면서도, 전제 유발 표현을 다룰 때에는 거의 전자에 대해서만 설명하였다. 화용론적 전제는 언어 표현과 별 연관이 없는 것처럼 다루짐. 그러나 위와 같이 화용론적 전제에 정보구조의 초점-전제를 도입한다면 여러 형식적 자질들을 연결시킬 수 있고 의미론적 전제만큼 흥미로운 현상들을 소개할 수 있다. 예) 문장의 주 강세, ‘은/는’ 등의 조사, 어순 및 분리구성, 분열문 같은 통사구성 등.

### 3. 의미화용론 개론서에서의 전제 유발 표현 검토: 내포절을 중심으로

-개론서들에서 다루어진 전제 유발 표현 목록

위에서 다양한 전제 개념을 살펴보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개념 자체가 아니라 이것을 한국어의 어떤 현상에 적용하여 바라보았는가 하는 부분일 것이다. 대상이 된 개론서들에서 다룬 전제 유발/생성 표현은 모두 영어 논의에서 먼저 다루어져 온 것들로, 어휘, 문법 요소에 걸쳐 다양하다. 총 목록을

4) 노명현(2012: 228-230)에서 재인용함.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3) 개론서들에서 다루어진 전제 유발 표현 목록

- 가. 고유명사, (한정) 명사(구), 수량 표현 혹은 양화사(예: ‘사과를 세 개’, ‘모든’)
- 나. 반복 부사어(예: ‘다시’), 첨가 부사어, 비교 표현(예: ‘처럼’, ‘만큼’)
- 다. 포유문 관련: 특정 서술어(‘후회하다’ 등 사실성 동사, 판단 동사, 상태 변화 동사)를 가진 포유문의 내포절 보문, 관형사절, 부사절
- 라. 분열문, 의문문
- 마. 어휘 성분(예: ‘아내’ → 여성)
- 바. 화행의 적정조건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전제 유발 표현을 설명할 때는 모든 개론서들에서 의미론적 전제, 즉 전제 1과 관련된 표현만을 제시하였고 화용론적 전제(전제 2~4)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언어 형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sup>5)</sup> 앞서 보았듯이 화용론적 전제를 아예 다루지 않은 논의들도 있지만, 그 개념을 소개하였다더라도 관련된 언어 표현은 따로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화용론적 전제의 성격이 그러하다고 본 것일 수도 있고(즉, 직접적으로 어떤 언어 형식과 긴밀히 관련되지 않는다고 본 것), 두 가지 전제의 개념을 실질적으로는 구별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윤평현(2000), 심재기 외(1984), 박종갑(1996)이 전자의 입장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화용론적 전제가 나타나는 언어 현상의 예로 화행의 예비조건을 들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화청자의 공통 기반으로서의 전제 4를 중심으로 화용론적 전제를 이해한다면, 보다 풍부한 언어 표현들의 목록이 함께 다루어질 수 있다.

-본고의 검토 대상: 내포절

본고에서 (3)의 목록 전체를 검토하는 것은 지면과 역량의 한계로 불가능하고, 이 중 포유문의 내포절과 관련된 부분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전제를 유발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은 박종갑(1996)<sup>6)</sup>을 제외한 다른 모든 개론서들에서 서로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내포절을 중요하게 다루었다.<sup>7)</sup> 이를 특정 서술어가 취하는 내포절 보문과, 상위절 서술어와 관계없는 일반적인 관형사절이나 부사절로 나누어 살펴보겠다.<sup>8)</sup>

### 3.1. 특정 서술어가 취하는 내포절 보문

#### 3.1.1. 보문 명제를 전제로 하는 경우

우선 특정 서술어의 내포절 보문 중에서, 내포절 보문을 전제로 유발하는 서술어에 대해 살펴보겠다. 여기에는 사실성 동사, 판단 동사, 상태 변화 동사가 소속되는데, 일부 개론서에서는 사실성 동사와 판단 동사를 나누어 제시하였으나 본고는 전제 유발의 관점에서 둘을 나눌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5) 민현식 외(2019)는 전제 유발 표현을 몇 가지 제시하였는데 이것들이 두 개념의 전제 중 어떤 것에 대응하는지 명시하지 않았지만 두 개념의 전제가 관련 표현에 있어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Sellars(1954)의 화자의 믿음에 입각하여 화용론적 전제 개념을 소개하였는데 이는 의미론적 전제 X에 대하여 화자가 ‘X’, 그리고 ‘청자는 X라고 믿는다’를 믿는다는 것으로, 다른 전제 유발 표현이 일으키는 전제 역시 두 가지로 모두 바라볼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추측된다.

6) 박종갑(1996)은 화용론적 전제가 드러나는 현상으로 화행의 적정조건만을 예로 들었음.

7) 심지어 박종덕(2007)에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전제 개념 자체에 내포절이 포함되어 있다. 어떤 문장 속에 이미 참이라고 인정되는 성분절이 안겨 있을 때, 이미 참이라고 인정되는 성분절을 그 문장의 전제라고 함.

8) 이하에서 ‘전제한다’는 표시는 ‘→’를 사용한다. 즉, ‘A → B’는 문장 A가 문장/명제 B를 전제함을 의미한다. 전제하지 않음은 ‘↗’를 사용한다.

(모두 그 내포절 보문 명제를 전제하는 경우이므로) 둘을 묶어 제시한다.

(4) 내포절 보문이 전제를 유발하는 동사<sup>9)</sup>

가. 사실성 동사 (나찬연 2019<sup>10)</sup>, 임지룡 2019, 윤평현 2020)

깨닫다, 후회하다 (3책 모두)

가연다(가엸다), 고백하다, 기억하다, 꾸짖다, 놀라다, 발견하다, 분개하다, 비판하다, 사과하다, 슬프다, 실감하다, 알다, 용서하다, 유감이다(유감스럽다), 이상하다, 인정하다, 잊다, 칭찬하다 (2책)

고맙다, 꾸중하다, 무시하다, 불행하다, 비난하다, 자랑하다, 파악하다 (1책)

나. 상태 변화 동사 (나찬연 2019, 윤평현 2020)

시작하다, 출발하다, 멈추다, 끊다, 그만두다 (2책)

계속하다 (1책)

사실성 동사 목록을 제시한 것은 나찬연(2019), 임지룡(2019), 윤평현(2020)인데, 세 개문서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된 동사는 ‘깨닫다’, ‘후회하다’이다.<sup>11)</sup> 그 외에 두 책에서만 언급된 동사, 한 책에서만 언급된 동사는 위와 같다. 상태 변화 동사는 나찬연(2019), 윤평현(2020)에서만 제시하였는데 역시 목록은 위와 같다.

이제 (4)와 같은 기술이 적절한지 살펴보겠다. 우선 아래와 같은 사실성 동사와 상태 변화 동사의 사례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상위절을 부정하더라도(‘~ 후회하지 않는다’, ‘~ 멈추지 않았다’) 그 명제가 그대로 전제로 유지된다.

(5) 가. 그는 늦잠을 잔 것을 후회한다. → 그는 늦잠을  잤다 (임지룡 2019: 388)

나. 영호는 지혜의 뒤를 쫓아다니는 것을 멈추었다. → 영호가 이제까지 지혜의 뒤를 쫓아다녔다. (윤평현 2020: 326)

그런데 전제라고 주장한 것이 실제로는 전제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경우들이 종종 발견된다.

(6) 가. 어머니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였다. → 어머니는 큰 소리로  울었다 (나찬연 2018: 193)

나. 학생부장 선생님은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파악했다. →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있다 (윤평현 2020: 325)

(7) 가. 어머니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였다. → 이전까지 어머니는 큰 소리로  울지 않았다

나. 학생부장 선생님은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파악했는데, 한 명도 나오지 않아 뿌듯해했다. →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있다

(6가)는 나찬연(2018)에서 상태 변화 동사들이 내포문을 전제한다고 하면서 든 예인데, ‘A가 X-기 시작하다’는 주절의 시점 이전에는 주어 A가 X라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가지지, 위와 같이 A가 X라는 행위를 했음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부정문으로 만들어보면 알 수 있음.) (7가)와 같이 설명해야 할 것이다. (6나)는 윤평현(2020)에서 상위문의 사실 동사에 의해 전제가 생성되는

9) 여기서 ‘동사’는 형용사까지 포괄한 것을 가리킨다.

10) 나찬연(2019)는 판단 동사에 대하여 내포문을 ‘전제할 수 있음’이라고 하여 ‘전제함’이라고 기술한 사실 동사와 미세하게 차이를 두는 것 같은데, 그 이상의 설명은 주어지지 않아 확실하지 않다.

11) 심재기 외(1984)에서도 전제(전제 1, 의미론적 전제) 개념을 설명할 때 ‘후회하다’를 예로 들어 설명함. 그런데 뒤에서 전제 표현을 제시할 때는 사실성 동사, 상태 변화 동사를 모두 영어로만 제시하였음.

것으로 든 예문인데 엄밀히 말해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은 보문이라고 하기 힘들고(‘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과 비교), 보문 여부를 떠나 이 문장이 위와 같은 명제를 전제로 반드시 가진다고 할 수 없다. (7나)와 같은 문장이 가능하고 또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 학과장은 이번 학기에 폐강이 되는 수업들을 파악하였는데, 모든 수업의 수강생 수가 폐강 기준을 넘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전제 유발 표현을 포함한 문장이 부자연스러운 경우들이 발견된다. 이는 영어의 이론적 논의를 수용하면서 영어의 사례들을 한국어로 옮기면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래와 같은 사례들이 있다.

(8) 가. ‘불행하다’ (나찬연 2019, 예문은 제시하지 않음): 그가 도박으로 재산을 모두 탕진한 것이 불행하다(?), 그는 도박으로 재산을 모두 탕진한 것에 불행했다(?)

나. 그는 간신히 탈출했다. → 그는 탈출하려고 노력했다. (윤평현 2020)

나’. 그는 간신히 탈출하지 않았다. → 그는 탈출하려고 노력했다.

(8가)는 나찬연(2019)에서 사실성 동사로 ‘불행하다’를 들었으나 이 동사는 내포문 보문을 가지는 구조로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러 개론서에서 사실성 동사의 예를 다양하게 들고 있는데, 목록의 제시에 그치지보다는 그 어휘가 만들어내는 실제의 자연스러운 한국어 문장들을 보다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이 중에는 영어 논의에서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 영어와 한국어가 차이 나는 지점이 없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윤평현(2020: 494-5 미주)에서는 Yule(1996)을 소개하면서 (8나)와 같이 ‘그는 간신히 탈출했다’가 ‘그는 탈출하려고 노력했다’를 전제한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영어 ‘manage to V’와 한국어 ‘간신히 V’의 차이를 놓친 오류로 보인다. ‘manage to (V)’가 상위절 서술어로 나타난 문장은 부정을 해도 주어 V-하려고 노력했다는 의미가 살아있지만, (8나)의 한국어 문장을 부정한 (8나’)에서는 그가 탈출하려고 노력했다는 의미가 반드시 들어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간신히 탈출하지 않았다. 쉽게 탈출했다.’) 즉, (8나)와 같은 전제 관계 설정은 부적절하다.

세 번째로 지적할 사항이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바로 보문 형식을 나누어 살펴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알다’의 경우, 영어의 ‘A know that P’는 P를 전제하지만 한국어의 ‘알다’ 구문은 일찍이 이정민(1978)에서부터 지적되어 왔듯이 보문 형식에 따라 P가 전제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9) 가. 철수는 영희가 휴학했음을 알고 있다. → 영희가 휴학했다

나. 철수는 영희가 휴학한 것을 알고 있다. → 영희가 휴학했다

다. 철수는 영희가 휴학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영희가 휴학했다

라. 철수는 영희가 휴학했다고 알고 있다. → 영희가 휴학했다

‘알다’의 보문 명제는 ‘-음’, ‘-은 것을’, ‘-은 것으로’, ‘-다고’ 등 여러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중 어떤 것이 쓰이느냐에 따라 문장이 그 보문 명제를 전제로 가지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달라진다. (9가, 나)와 같이 ‘-음’, ‘-은 것을’이 쓰이면 전제가 발생하지만 (9다, 라)와 같이 ‘-은 것으로’, ‘-다고’가 쓰이는 경우 전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9다, 라)의 경우 ‘영희가 휴학했다’라는 명제는 사실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알다’의 여러 구문이 의미 차이를 가짐이 명확하고 2000년대 이전에도 관련된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남기십 1973, 이정민 1978, 강범모 1983, 신지연 1994, Kim K.A. 199

512) 등) 그러한 연구 성과가 개론서에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음은 무척 아쉬운 일이다.<sup>13)</sup> 본고에서 살펴본 개론서들 중 어느 것도 위와 같은 보문의 차이를 언급한 바 없었다. 소위 사실성 술어들은 보문 형식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서술어 자체의 특성, 보문 명사의 특성도 중요한데 이를 모두 고려하여 다양한 현상을 관찰하고 기술해야 할 것이다.

관련한 또 한 가지 사항으로, 소위 사실성 술어들은 그 논항 구조가 다양한데 이를 유형별로 나누고 구체적인 예문을 통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 (10) 가. 철수는 영희에게 자기가 실수했음을 사과했다.
- 나. 철수는 영희에게 자기가 실수한 것을 사과했다.
- 다. \*철수는 영희에게 자기가 실수한 것으로 사과했다.
- 라. 철수는 영희에게 자기가 실수했다고 사과했다.
- (11) 가. 철수는 영희가 이겼음을 인정했다.
- 나. 철수는 영희가 이긴 것을 인정했다.
- 다. 철수는 영희가 이긴 것으로 인정했다.
- 라. 철수는 영희가 이겼다고 인정했다.
- (12) 가. 철수는 영희가 떠났음을 실감했다.
- 나. 철수는 영희가 떠난 것을 실감했다.
- 다. \*철수는 영희가 떠난 것으로 실감했다.
- 라. \*철수는 영희가 떠났다고 실감했다.

예를 들면 ‘사과하다’의 경우에는 네 가지 형식 중 (10)과 같이 ‘-은 것으로’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가능하고<sup>14)</sup>, ‘인정하다’는 (11)과 같이 모든 형식이 가능하며, ‘실감하다’는 ‘-음을’, ‘-은 것’이 가능하다. (10)의 유형으로 ‘사과하다’ 외에 ‘꾸짚다’를 들 수 있으며 (11)의 유형으로는 ‘기억하다’, ‘파악하다’ 등이 있다.

또한 다양한 사실성 술어 중 보문의 문법관계에 따라서도 유형을 나눌 수 있다. 위 (10)~(12)에서는 목적어인 경우만 제시하였지만 보문이 주어, 목적어, 부사어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컨대 ‘유감이다’는 ‘~은 것이 유감이다’, ‘놀라다’, ‘분개하다’는 ‘~은 것에 놀라다/분개하다’의 구조를 가지는데, 이러한 문법적 차이도 세밀하게 살펴 기술할 필요가 있다.

### 3.1.2. 보문 명제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

이상으로 내포절 보문이 전제를 불러오는 동사들과 그 구문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사실성’ 동사 외에 개론서에서는 ‘비사실성’ 동사와 ‘반사실성’ 동사도 함께 다루어진 경우가 많다. 비사실성 동사란 내포절 보문이 전제를 일으키지 않는 동사들로서, 내포절 보문 명제가 사실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를 말한다. 반사실성 동사란 내포절 보문의 반대, 즉 보문 명제의 부정이 전제되는 경우를 말한다. 각각에 대해 간략히 검토하도록 하겠다.

- (13) 내포절 보문에서 전제가 유발되지 않거나 그 반대 명제가 전제되는 동사
- 가. 비사실성 동사 (나찬연 2019, 윤평현 2020)

12) Kim, K.A.(1995)는 이성범(1999)에서 재인용함.

13) 최근 황현동(2020), 이정민(2020), 허세문·김건희(2022) 등 한국어를 중심으로 더욱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14) (10다)가 가능하기도 한데 이는 ‘자기가 실수한 것’이 사과의 대상인 의미가 아니라 사과의 원인/이유인 의미인 경우이다.



가능하다, 기대하다, 말하다, 믿다, 바라다, 생각하다, 원하다, 주장하다, 착각하다, 추정하다 (나, 윤)  
가정하다, 단정하다, 상상하다, 의도하다, 확신하다 (윤)

나. 반사실성 동사<sup>15)</sup>

-ㄴ 체하다 (임, 윤)

꿈꾸다, 상상하다 (임) ; -ㄴ 척하다, -ㄴ 양하다, (X처럼) 가장하다/꾸미다 (윤)

위 (13)과 같은 기술이 적절한지 살펴보겠다. 비사실성 동사와 반사실성 동사가 가지는 전제와의 관계는 예컨대 아래와 같이 기술되었다. (14가)는 ‘생각하다’가 쓰인 문장이 그 보문 명제를 전제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고, (14나)는 ‘-은 척하다’가 쓰인 문장이 그 보문 명제의 반대값을 전제한다고 보인 것이다.

(14) 가. 창수는 영호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다. ⇨ 영호가 거짓말을 한다.

나. 창수는 자신이 부자인 척했다. → 창수는 부자가 아니다. (가, 나 모두 윤평현 2020: 325)

그런데 (13)과 (14)와 같은 설명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앞서 사실성 동사나 상태 변화 동사에 대한 설명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내포질의 형식을 더 세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예컨대 복수의 개론서에서 비사실성 동사로 언급하였고 (14가)와 같은 예문을 든 ‘생각하다’의 경우, 아래 (15가)와 같이 ‘-음을 생각하다’의 구문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내포질 명제의 사실성이 유지된다. (‘생각하지 않았다’로 문장을 부정해도 ‘그녀가 옆에 있음’은 성립함.) 즉, ‘생각하다’가 어떠한 구문에서 쓰이는지를 살피지 않은 채 이를 비사실성 동사로 단정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둘째로, 임지룡(2019)에서는 ‘꿈꾸다’, ‘상상하다’가 그 내포문 명제의 부정을 전제한다고 기술하였지만(즉, 반사실성 동사로 처리), 이 중 ‘상상하다’를 윤평현(2020)에서는 비사실성 동사에 넣어 관점이 갈리는데, 둘 중 후자의 관점이 옳다고 할 수 있다. 아래 (15나)에서 보듯 ‘상상하다’가 쓰인 문장의 보문 명제도, 그것을 부정한 명제도 전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로, 여러 논의에서 반사실성 동사로 본 ‘-은 척하다/체하다’의 경우 항상 그 보문 명제의 부정이 사실이라고 의미하는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예컨대 (15다)와 같이 ‘X가 예쁜 척하다’의 경우 ‘X가 예쁘다’와 ‘X가 예쁘지 않다’ 중 어느 것도 사실로 보장하는 것 같지 않다. ‘잘난 척하다’도 마찬가지로 보인다.<sup>16)17)</sup>

(15) 가. 그는 그녀가 옆에 있음을 생각했다. → 그녀가 옆에 있다.

나. 그는 그녀가 바람을 피우는 것을/피운다고 상상했다. ⇨ 그녀가 바람을 피운다.

⇨ 그녀가 바람을 피우지 않는다.

다. 영희가 예쁜 척했다. ⇨ 영희가 예쁘다

⇨ 영희가 예쁘지 않다

15) 임지룡(2019)에서는 이를 ‘비사실동사’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일반적으로 ‘반사실동사’라고 하는 것에 소속되는 것이 적합하다. 그런데 뒤에서 보겠지만 여기에는 또한 비사실성 동사와 반사실성 동사가 섞여 있다.

16) ‘-은 척하다’가 결합하는 술어에 따라 차이가 날 가능성도 있다.

17) ‘반사실성 동사’에 대해서는 신지연(1994)의 비판적 견해도 참고할 만하다. 이 논의에서는 ‘체하다, 척하다, 양하다’ 등을 반사실성의 전제라 보는 의견도 있지만, 부정 검증에 의하면 그러한 의견이 옳지 않다고 하였다. 예) “영희는 배가 고프다.”는 ‘영희는 배가 고프지 않았다’를 함축. “영희는 배가 고프다.”는 함축이 중립적(neutral)이라고 함.

### 3.2. 상위절 서술어와 관계없는 일반적인 관형사절이나 부사절

#### 3.2.1. 관형사절

다음으로, 상위절 서술어와 상관없이 관형사절이나 부사절이 전제를 가져온다는 기술도 여러 개론서들에서 빈번히 발견되는데, 이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우선 관형사절에 대한 기술을 살펴본다. 관형사절이 전제 유발 표현이라고 본 개론서로는 나찬연(2019), 임지룡(2019), 윤평현(2020)이 있는데, 이들의 기술 내용은 서로 유사하다. 다른 단어나 세부 기술 없이 관형사절이 전제를 유발한다고 하고 아래와 같은 예를 들었다.<sup>18)</sup>

(16) 관형사절을 전제 유발 표현으로 본 개론서들의 기술 내용

가. “술을 많이 마신 대통령이 연설을 하다가 쓰러졌다.”가 ‘대통령이 술을 많이 마셨다’를 전제함 (나찬연 2019)

나. “그가 만든 영화는 흥행에 {성공했다, 성공하지 못했다}.”가 ‘그가 영화를 만들었다’를 전제함 (임지룡 2019)

다. “내가 먹은 점심은 김치찌개였다.”가 ‘내가 점심을 먹었다’를 전제함 (윤평현 2020)

(16)에 보인 문장들은 그에 대응하는 전제라고 주장된 명제를 의미로 담고 있기는 하다. 예를 들면 ‘술을 많이 마신 대통령이 연설을 하다가 쓰러졌다/쓰러지지 않았다’는 긍정문이든 부정문이든 모두 ‘대통령이 술을 많이 마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 제시한 문장들만 가지고 관형사절이 전제 유발 표현이라고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하다.

우선, (16)에 제시한 문장들에서 관형사절과 그것이 수식하는 명사의 구성은 모두 문장에서 주어에 해당함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16나, 다)는 주어일 뿐만 아니라 조사 ‘은/는’이 결합되어 있다. 즉, 해당 명사구가 문장에서 화제에 해당하는 것이다. 일찍이 Strawson(1964)에서 지적했듯이 화제라는 지위는 전제와 깊이 연관된다. (16)의 문장들이 긍정문이든 부정문이든 오른쪽에 제시한 명제를 그 의미에 포함하는 현상은 관형사절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명사구가 문장에서 화제이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을 배제하고 문장에서 주어 혹은 ‘은/는’ 구 이외에 다른 지위로 나타나는 관형사절 수식 구성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17) 가. 영희가 끓여 준 라면은 너무 매웠다/맵지 않았다. → 영희가 라면을 끓여 주었다.

나. 철수는 영희가 끓여 준 라면을 먹었다/먹지 않았다. →? 영희가 라면을 끓여 주었다.

위 (17가, 나)는 동일한 관형사절 수식을 받은 명사구가 ‘은/는’이 붙은 주어인 경우와 ‘을/를’이 결합한 목적어인 경우를 비교한 것이다. (17가)는 (16)과 마찬가지로 관형사절 수식 구성이 나타내는 명제의 사실성이 유지된다. 그러나 (17나)는 상황이 조금 복잡하다. 여기에서 유효적인 문장 강세가 목적어 명사구에 놓이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해당 명제의 전제 지위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특별한 강세가 없는 경우에는 부정문에서도 ‘영희가 라면을 끓여 주었다’가 사실로 유지되는 반면, ‘영희’나 ‘끓여 준’, ‘라면’ 등 명사구 내부에 문장의 유효적인 주 강세가 놓이는 경우 부정문에서는 ‘영희가 라면을 끓여 주었다’가 사실로 유지되지 않는다.<sup>19)</sup> (예: 철수는 **영희가** 끓여 준 라면을 먹지 않았어.

18) 민현식 외(2019)는 직접적으로 관형사절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정 명사구’가 전제를 유발한다고 하며 그 예로 “장원이가 웃는 소리가 열방까지 들렸다”가 ‘장원이가 소리를 내서 웃었다’를 전제한다고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관형사절+명사 구성을 전제 유발 표현으로 보았다고 할 수도 있을 듯하다.

19) (16)의 화제, (17)의 문장 강세가 전제에 관여한다는 사실은 의미론적 전제(전제 1) 개념도 순수히 의미론적으

영수가 끓여 준 라면을 먹었어. 영희는 라면을 못 끓여.)

또한 아래 (18)에서 볼 수 있듯이 관형사절이라고 하더라도 현실 서법의 ‘-(으)ㄴ’이 아니라 비현실 서법의 ‘-(으)ㄹ’이 쓰이는 경우, 그리고 ‘-(으)ㄴ’이 쓰였지만 주절 서술어에 비현실 서법이 쓰이는 경우에는 관형사절 수식 구성이 표현하는 명제가 전제되지 않는다. 특히 (18나)는 ‘-(으)ㄴ’이 결합한 관형사절이라고 해도 그 자체로 항상 전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전체 문장을 고려해야 함을 말해준다.<sup>20)</sup>

(18) 가. 영희가 끓여 줄 라면은 매울 것이다. ⇨ 영희가 라면을 끓여 주었다.

나. 영희가 끓여 준 라면은 매울 것이다. ⇨ 영희가 라면을 끓여 주었다.

나아가, 문장이 현실 서법이고 관형사절 어미가 ‘-(으)ㄴ’인 경우에도 언제나 그 관형사절 명제가 전제되는 것은 아님도 지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래 (19가)와 (19나)를 비교해 보면, 주절 서술어의 의미에 따라 동일한 구 ‘철수가 혼자 쓴 논문’이 전제를 유발하는지 여부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19나)의 문장을 발화할 때 화자는 철수가 혼자 논문을 썼음을 사실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후자의 맥락이 더 빈번한 것으로 추측된다.

(19) 가. 나는 철수가 혼자 쓴 논문을 교정 봐 주었다. → 철수가 혼자 논문을 썼다.

나. 나는 철수가 혼자 쓴 논문을 보지 못했다. ⇨ 철수가 혼자 논문을 썼다.

이상으로 지적한 세 가지 논점으로부터, 관형사절이 그 자체로 전제를 유발한다고는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즉, 관형사절을 그것이 포함된 전체 문장의 다른 문법적, 의미적 특성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전제 유발 표현으로 기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3.2.2. 부사절

다음으로 부사절을 살펴보자. 관형사절과 부사절은 모두 내포절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관형사절을 전제 유발 표현으로 본 개론서들은 모두 부사절 (혹은 부사절 중 일부) 역시 전제 유발 표현으로 다루고 있다. 임지룡(2019)은 부사절이 전제를 생성한다고 하였고, 나찬연(2019)는 전체 문장이 과거 시제인 경우, 그리고 윤평현(2020)은 시간 부사절에 한해서 전제가 유발된다고 하였다.

(20) 부사절을 전제 유발 표현으로 본 개론서들의 기술 내용

가. 부사절은 전체 문장이 과거 시제인 경우 부사절 내용이 전제가 된다. “경비원이 자리를 비운 뒤에 도둑이 사무실에 침입했다.”가 ‘경비원이 자리를 비웠다’를, “저 여자가 우리 아이를 먼저 때렸기 때문에, 나도 저 여자를 때렸다.”가 ‘저 여자가 우리 아이를 먼저 때렸다’를 전제함. (나찬연 2019)

나. “그는 사업에 실패한 뒤에 고향으로 {돌아갔다, 돌아가지 않았다}.”가 ‘그는 사업에 실패했다’를 전제함. (임지룡 2019)

다. 시간부사절이 전제를 유발한다. “나는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을 뵈었다”가 ‘나는 고향에 내려갔다’를, “영호가 방으로 들어오자 수자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가 ‘영호가 방으로 들어왔다’를 전

---

로만 설명될 수는 없음을 말해주며, 정보구조적 관점도 전제 현상의 설명에 중요하게 도입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해 준다. 정보구조적 관점의 전제에 대해서는 후술.

20) 이는 앞서 본 소위 사실성 술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제함. (윤평현 2020)

우선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부사절’ 개념에 혼란이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20)에서 예로 든 문장들 중 ‘-(으)나 뒤에’, ‘-기 때문에’는 엄밀히 말해 부사절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형사절이나 명사절이 명사를 수식한 구성에 조사가 결합한 구성이다.<sup>21)</sup>

또한 임지룡(2019), 윤평현(2020)에서는 부사절 명제가 전제되는 전체 문장의 다른 어떤 조건을 달지 않았지만, 위 (18)에서 관형사절의 서법이 관여한다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사절의 경우에도 문장이 현실 서법을 가진 경우에만 해당 명제가 전제 지위를 가질 수 있다.<sup>22)</sup>

(21) 가. 철수는 보나마나 자기가 실수한 {뒤, 후, 다음}에 남 탕을 할 거야. ⇨ 철수가 실수했다

나. 철수는 보나마나 자기가 실수한 {뒤, 후, 다음}에 남 탕을 했겠지. ⇨ 철수가 실수했다

더 주목하는 문제는 애초에 위의 밑줄 친 부분들이 전체 문장에 한 성분으로 내포된 부사절이 맞는가 하는 부분이다. 윤평현(2020)은 종속접속문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 부사절로 보는 견해를 취한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20다)와 같이 문장들을 분석하였다. 종속접속절과 부사절의 구별 문제는 복잡한 통사론적인 문제이고 여기에서 논할 수는 없으나, (20다)의 ‘나는 고향에 내려가서’, ‘영호가 방으로 들어오자’ 등을 부사절이 아닌 종속접속절로 본다면 이는 정동사절이고 문장의 두 절이 모두 전제가 아닌 함의를 나타내는 것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신지연(1994)에서도 ‘-어서’, ‘-다가’가 이끄는 절을 전제와 관련하여 논의하였는데, 해당 절이 전제일 수도 있고 후행절이 전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때 ‘전제’ 개념이 어떠한 개념인지 조금 불분명하다. 이 논의에서는 의미론적 전제와 화용론적 전제를 구별한다고는 하였지만,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두 개념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영식은이를 풀을 베다가 다쳤다’에 대하여, 화자는 선행절 내용을 전제로 하면서 후행절 내용을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주된 정보로 삼을 수도 있고 그 반대를 할 수도 있다고 하였는데, ‘화청자 간에 공유되는 정보’, ‘새로운 정보’ 등의 개념은 우리가 나눈 전제 개념 중 화용론적인, 전제 4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장을 ‘접속문’이라고 불렀는데 이러한 관점은 위에서 말했듯이 해당 절을 내포절이 아닌 주절/상위절로 보는 것이어서 애초에 전제를 표현한다고 보기 힘든 문법적 지위이다.

지금까지 3장에서는 기존의 개론서들에서 포유문의 내포절을 전제 유발 표현으로 다룬 사례들을 자세히 검토하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 중 중요한 내용을 다시 요약하면, 소위 사실성 동사나 상태 변화 동사의 보문이 전제 유발 표현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보문 형식과 동사가 만들어내는 구문의 구조를 더 세밀히 살펴보고 그에 따른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관형사절이나 부사절 등 내포절이 전제를 생성한다는 입장도 있었는데 이러한 일반화는 부적절하며 그것이 포함된 전체 문장의 여러 속성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sup>23)</sup>

#### 4. 결론

21) 영어의 ‘after’, ‘because’로 이루어진 부사절에 대응하는 한국어 문장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어긋남이 초래된 것이 아닌가 한다.

22) 나찬연(2019)에서는 과거 시제로 기술하였으나 (21나)에서 볼 수 있듯이 과거 시제보다는 현실 서법으로 기술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23) 그 외에 ‘-은 줄 알다/모르다’ 등, 기존 개론서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최근 연구들(이정민 2020, Jeong, S. 2020 등)에서 활발히 논의된 한국어 전제 관련 현상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적용한다면 개론서의 기술 내용이 훨씬 더 풍성해질 것이다.

다른 사람이 쓴 글, 그것도 개론서를 비판하는 것만큼 쉬운 일은 없을 것이다. 한 분야의 여러 하위 분야들을 망라하면서도 내적 정합성을 유지해야 하고, 교육 내용을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평이한 수준으로 담아내야 한다. 그래서 정교하고 복잡한 설명이 해당 언어 현상에 적절하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때로는 거친 일반화를 할 수밖에 없기도 하다.

본고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적어도 설명에서 이용된 한국어 예문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설명에 대한 반례가 쉽게 찾아지는 문제는 해결되어야 하고, 또 그 해결이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여 이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본 전제 유발 표현, 복합문의 내포절에 대한 기술에서 발견된 문제들은 복잡한 이론을 끌어들이거나 모든 선행 연구를 섭렵하지 않고도 충분히 기존 개론서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경우였다. 이를 통해 한국어 의미화용론 개론서들의 '전제' 기술 내용 및 방식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다면 본고의 소박한 목적을 달성했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강범모(1983), “한국어 보문명사 구문의 의미 특성”, 어학연구 19(1), 53-73.
- 나찬연(2019), 현대 국어 의미론의 이해, 경진출판.
- 남경완(2012), “국어 의미론 학술 용어의 사용 양상: 한국어 의미학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37, 1-25.
- 남기심(1973), 국어 완형보문법 연구, 탑출판사.
- 노명현(2012), 의미론 개관, 한국문화사.
- 민현식 외(2019), 국어 의미 교육론, 태학사.
- 박선자·김문기(2009), “대학에서의 국어의미론 교육의 현황과 전망”, 한국어 의미학 29, 57-89.
- 박재연(2020), “국어학회 60년과 한국어 의미론”, 국어학 93, 469-508.
- 박종갑(1996), (토론식 강의를 위한) 국어의미론, 박이정.
- 박종덕(2007), (국어교육을 위한) 국어의미론 탐구, 정인.
- 신지연(1994), “전제와 부정: 의미적 전제와 화용적 전제”, 텍스트언어학 1, 201-223.
- 심재기·이기용·이정민(1984), 의미론서설, 집문당.
- 심재기·채완 공편(2002), 언어와 의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윤평현(2020), 새로 펴낸 국어의미론, 역락.
- 이성범(1999가), “제6장 비진리조건적 추론”, 강범모 외, 형식 의미론과 한국어 기술, 한신문화사, 263-314.
- 이성범(1999나), 언어와 의미: 현대의미론의 이해, 태학사.
- 이성범(2015/2019), 소통의 화용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화용론적 접근, 한국문화사.
- 이정민(1978), “‘알다’라는 말의 분석”, 마음 1, 60-65. [
- 이정민(2020), “태도 동사 ‘알다’의 사실성 교체: 한국어와 그 밖의 알타이 제어의 특성”, 국어학 96, 3-58.
- 임지룡(1992), 국어 의미론, 탑출판사.
- 임지룡(2019), 한국어 의미론, 한국문화사.
- 전영철(2018), “의미론의 어제와 오늘”, 한국어학 81, 65-88.
- 조경순(2016), “한국어 화용론의 전개와 방향”, 한국어 의미학 54, 61-90.

- 최윤지(2018), “전제의 두 가지 개념과 정보구조”, *형태론* 20(1), 140-153.
- 최윤지(2016/2019), *한국어 정보구조 연구*, 태학사.
- 허세문·김건희(2022), “사실성 전제와 보문의 특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 *국어학* 101, 95-150.
- 황현동(2020), *한국어 전제 유발 표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tlas, J. D. (2004), Presupposition, in Horn, L. R. & Ward, G. (eds.), *The Handbook of Pragmatics*, Oxford: Blackwell, 29-52.
- Beaver, D. and Geurts, B. (2014), Presupposition,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2014 edition), Zalta, E. N. (ed.), URL = <<https://plato.stanford.edu/archives/win2014/entries/presupposition/>>.
- Chomsky, N. (1969), Deep Structure, Surface Structure, and Semantic Interpretation, in Steinberg, D. and Jakobovits, L. (eds.), *Seman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3-216.
- Dinsmore, J. D. (1979), *Pragmatics, Formal Theory, and the Analysis of Presupposition*,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s Club.
- Frege, G. (1892), Über Sinn und Bedeutung, *Zeitschrift für Philosophie und Philosophische Kritik* 100, 25-50. [Frege, G. (1970), On Sense and Reference, in Geach, P. and Black, M. (eds. and trans.), *Translations from the Philosophical Writings of Gottlob Frege*, Oxford: Basil Blackwell.]
- Geurts, B. (2017), Presupposition and Givenness, in Huang, Y. (ed.), *The Oxford Handbook of Pragmatics*, Oxford University Press, 180-198.
- Huang, Y. (2007), *Pragmatics*, Oxford University Press. [이해윤 역(2009), 『화용론』,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Jackendoff, R. S. (1972), *Semantic Interpretation in Generative Grammar*, Cambridge, Mass: MIT Press.
- Jeong, Sunwoo (2020), Prosodically-conditioned Factive Inferences in Korean: An Experimental Study, in *Proceedings of SALT 30*, 1-21.
- Karttunen, L. (1973), Presuppositions of Compound Sentences, *Linguistic Inquiry* 4, 169-193.
- Keenan, E. (1971), Two Kinds of Presupposition in Natural Language, in Fillmore, C. J. and Langendoen, D. T. (eds.), *Studies in Linguistic Semantics*, New York: Holt, Reinhart, and Winston, 45-53.
- Kim, K. A. (1995), Presupposition Inheritance: From a Perspective of Discourse Processing,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20(4), 1-22.
- Kiparsky, P. and Kiparsky, C. (1970), Fact, in Bierwisch, M. and Heidolph, K. E. (eds.), *Progress in Linguistics*, De Gruyter Mouton, 143-173.
- Lambrecht, K. (1994), *Information Structure and Sentence Form: Topic, Focus, and the Mental Representations of Discourse Referen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vinson, S. C. (1983), *Pragma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wis, D. (1979), Scorekeeping in a Language Game, *Journal of Philosophical Logic* 8, 339-359.
- Sæbø, K. J. (2016), Information Structure and Presupposition, in Féry, C. and Ishihara, S. (eds.), *The Oxford Handbook of Information Structure*, The Oxford University Press, 128-146.

- Sellars, W. (1954), Presupposing, *The Philosophical Review* 63(2), 197-215.
- Stalnaker, R. (1972), Pragmatics, in Davidson, D. and Harman, G. (eds.), *Semantics of Natural Language*, Dordrecht: Reidel, 380-397.
- Stalnaker, R. (1974), Pragmatic Presuppositions, in Munitz M. and Unger, P. (eds.), *Semantics and Philosophy*, New York University Press, 197-214. [Reprinted in Stalnaker, R. (1999), *Context and Content*, Oxford University Press, 47-62.]
- Strawson, P. F. (1950), On Referring, *Mind* 59, 32-44.
- Strawson, P. F. (1952), *Introduction to Logical Theory*, Methuen.
- Strawson, P. F. (1964), Identifying Reference and Truth Values, *Theoria* 30, 96-118.
- Yule, G. (1996), *Pragmatics*, Oxford University Press.